

한라포커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그 후(하)

“전국 확대, 보완 과제 산적”

소비자·매장 “불만”... 시간 흐르며 긍정 효과도
수거되는 컵 상태 좋아지고 수거 양도 느는 추세
환경부 “제주서 시범운영... 불편한 점 개선할 것”



제주서 구좌읍에 있는 한 업체의 창고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이후 수거된 컵이 포대에 담겨 쌓여 있다. 김지은기자

지난 10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1회용컵 보관 장소'라고 적힌 공간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컵을 가득 담은 10여 개의 포대 자루가 쌓여 있었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자원순환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수거된 들어온 양이다. 각 매장에서 회수한 일회용컵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수거 업체 2곳을 통해 이곳으로 모이고 있다.

한 번 쓰였던 일회용컵은 그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인 페트(PET)와 PP, 종이, 이 세 가지로 선별된다. 이후 압축 단계까지 거쳐 육지에 있는 재활용 전문 업체로 보내질 예정이다. 하지만 아직은 수거된 양이 많지 않아 선별 작업까지만 이뤄지고 있다.

▶일회용컵 수거 늘고는 있지만-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며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

곳에 들어오는 컵 상태를 보면 변화가 감지된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처음 수거될 때 들어올 때만 해도 컵홀더에 빨대, 쓰레기까지 섞여 있거나 음료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한두 달간 계도를 하니 배출 기준에 맞게 들어오고 있다. 컵 상태도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수거되는 컵도 점차 늘고 있다.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 12월 도내에서 모인 일회용컵 무게는 180kg에 그쳤지만 1월 한 달 수거 양은 1050kg으로 늘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지난 1월 5일까지 수거된 일회용컵 개수는 10만 개 정도였지만 2월에 들어 그 수가 25만 개(누적)를 넘어섰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도 제도 정착까지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는 물론 반납 불편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

도내 다회용컵 대어 업체인 푸른 컵 한정의 대표는 “모든 제도가 처음엔 시행착오를 겪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막판에 (전국 시행 등을) 유예하며 후퇴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어느 매장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해도 되는 게 돼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회용컵 사용자 입장에선 ‘교차 반납’(매장 브랜드 구분 없이 반납)이 가능해서 어디서나 편하게 반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부과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첫 시행’ 제주에서의 제도 정착 관건-환경부가 전국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이행 매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제도의 취지는) 일회용컵을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때 재활용을 잘하게 하고 점차 다회용컵을 쓰는 모멘텀으로 삼자는 것인데, 전국 확대가 아닌 제주와 세종으로 시행지역이 좁혀지면서 사실상 무의미하게 됐다”며 “환경부가 직접 전국화 시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제 이행은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단속이 유예되며 사실상 의무가 아닌 게 됐다”며 “불편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장에 대한 홍보와 인센티브를 통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매장에서의 컵 사용 패턴이 여름과 겨울에 다르기 때문에 우선 제주와 세종에서 사계절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라벨지 방식 등으로 인한 이행 매장의 부담을 덜고 우수 매장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1년 선도 사업 중에 해결할 과제”라고 말했다. <글> 김지은기자

“편향된 데이터 기반, 혼란만 부추겨”

탈핵제주행동 日 핵오염수 시뮬레이션 논평... 신뢰성 문제 제기

지난 1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와 관련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왜곡·편향된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기인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을 우려한다”고 했다.

제주행동은 “이번 시뮬레이션은 핵오염수에 담긴 62개 핵종 중에 삼중수소만을 대상으로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활동된 데이터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왜곡되고 부적절한 데이터만을 가져다 써 해

류에 따른 핵오염수의 확산경로와 확산범위를 확인한 것에만 의미가 있을 뿐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감기가 긴 핵종과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핵종이 다수 포함된 핵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정확할 수 있는지조차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며 “일본 정부가 62개 핵종 중 삼중수소만 제거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국민 혼란만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행동은 “정부는 안전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대재앙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북대평양의 수많은 인류와 생명의 존속을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며 “오염원 도지사 역시 정부의 대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강력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사회와 협력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전국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18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무수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충돌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들.

주말 평화로서 8중 추돌 12명 부상

내리막길 달리던 화물차 브레이크 파열 추정

평화로서 화물차가 차량 8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부상자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18일 제주서부경찰서와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8분쯤 제주시 애월읍 광령

리 무수천 사거리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화물차가 내리막 길을 달리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SUV 등 차량 8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포함해 총 12명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

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일부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으며, 사고 여파로 인해 주변 구간에서 2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화물차의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SUV 전진주 추돌... 1명 숨져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대리 대천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SUV 차

량이 전진주를 들이받고 전도됐다.

이 사고로 차량 조수석 뒤에 타고 있던 80대 여성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또 운전자와 50

대 여성, 7살 어린이 등 3명은 팔과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도에서 여행을 온 친인척 관계로 알려졌다. 김도영기자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社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감귤 신제품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품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리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맹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분양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지향	3년생
맹자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요목

유라조생	2,3년생	아스미	6년생
유라실생	4,5년생	한라봉	2,3년생
궁천	3,5년생	황금향	2년생
레드향	2,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레몬	4년생
하갈	4,5년생	맹자요목	2년생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설육요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